
따뜻한 마음과 밥 한 그릇

- 하성란과 윤성희의 소설 -

한혜경 · 문학평론가 / 명지전문대 교수

1. 유용함을 추종하는 시대, 유용하지 않은 문학

고층 빌딩과 복잡한 도로를 누비는 자동차의 행렬,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계들,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들, 오늘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풍경이다. 생활이 날로 편리해지는 가운데,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고와 자본주의의 위세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 열매를 달콤하게 향유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한구석에서 피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존재한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사회 구도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앞서 나가려는 자들은 성공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홀로 우뚝 서기보다 함께 나누는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경쟁에서 뒤지기 쉽다. 현실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이들은 문학작품에 등장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피어나는 정과 온기임을 웅변하고 있다.

1970년대, 김현은 문학의 효용성에 대해 지적하기를,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문학을 함으로써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학과 지성”, 1975 겨울).

하성란과 윤성희의 소설은 이 시대 유용한 것들이 인간들을 억압하고 있는 정황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하여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다. 1996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하성란은 ‘커팅이 잘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빌딩의 아름다움 뒤에 눈을 찌르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음을 예민하게 감지하며, 하성란보다 3년 뒤 등단한 윤성희는 공장 사장의 외아들로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는 자의 외로움을 찬찬히 얘기한다.

그래서 이들의 소설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세속사회에서 욕망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고독함에 가슴 한 구석이 싸해지고 그들이 내미는 손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문학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2. “우주선 니어호는 3년간 20억 km를 날아가 에로스라는 소행성을 만난다.”

산업화로 인해 믿음과 정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의 삭막함은 1978년 이청준에 의해 ‘잔인한 도시’로 명명된 바 있다. 냉혹한 거래와 거짓 자유가 횡행하던 이 도시는 20여 년 후 하성란의 소설에서 화려해진 외양 이면에 비정함과 욕망을 숨긴 모습으로 등장한다.

96년 첫 소설집인 ‘루빈의 술잔’과 99년의 ‘옆집여자’에서 작가는 커다란 통유리로 이루어진 고급 자동차 전시장, 현란한 광고판, 햇빛에 빛나는 유리 건물, 밤이면 현란한 불빛으로 번쩍거리는 쇼윈도 등을 통해 고도성장으로 빛어진 우리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화려함 뒤에

는 토사물로 얼룩진 골목길, 축고 어두운 응달, 통증과 폭력 등이 숨어있다. 금발 미녀가 유혹적 포즈로 그려져 있는 광고판의 뒤는 “각목들이 양철판에 가로세로로 어지럽게 붙어있고 녹슨 대못들이 툭툭 불거져 있”고 ‘원산폭격’과 ‘구타’가 행해지는 음산한 곳이기도 하다. 쇼윈도에 진열된 화려한 봄옷에는 그 옷이 만들어지기까지 시침핀에 찢려가며 옷을 입어보는 피팅모델의 아픔이 숨어있으며 위풍당당한 고층빌딩은 그림자로 인해 체감온도가 훨씬 낮은 음지를 만든다.

이러한 도시를 배경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성란 소설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성실하지만 출세와는 거리가 멀다. 실용적인 일이나 실적 올리는 데 관심 없고 ‘쓸 데 없는 데’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남편은 은행원입니다. 일원짜리 하나도 실수없이 계산해야 하는 은행원들에게 내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세탁기와 이야기하는 중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간 내 머릿속을 의심받았을 거예요. 남편 말에 의하면 내 머릿속은 공상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늘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허공에 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은 유령 같은 내게 불만이 많아요.

- ‘옆집 여자’에서

남편과 마찬가지로 은행원이었지만 ‘뛰어난 은행원’은 아니었던 화자는 ‘무조건’ 사람을 잘 믿고 “음악을 듣고서 우유 생산이 곱절로 늘었다는 젓소 이야기나 거대한 숲의 바닥에 사는 식물들이 햇빛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와 같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집안 사물에 이름을 붙이고 말을 걸기도 하는 그녀는 실리적인 남편으로부터 ‘한심하다’는 편지를 듣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까지 취급당한다.

실용적 가치를 옹호하는 자들로부터 밀려나는 이들이 힘겨워하는 것은 물질적 궁핍이 아니라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이다. 만원 버스의 난폭한 운전, 중량 초과를 알리는 엘리베이터의 녹음된 목소리, 마네킹으로

착각해 디자이너들이 찌르는 시침핀, 피서지에서 익사 사고를 목격하고 도 ‘먹을 건 먹어라지.’ 하는 무심함, 실적을 위해서라면 뛰는 할 수 있다는 태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닌 진열된 자동차 위주로 꾸며진 사무실, 사장의 ‘하얀 와이셔츠와 구김 없는 양복’ 등, 완벽하지만 차갑고 비정한 경우들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출세욕뿐 아니라 식욕이나 소비 욕구와 같은 욕망에서도 자유로운 이들은 보헤미안의 삶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우리 소설의 새로운 인물 유형이라 할 만하다. 자신이 놓여있는 현실을 말없이 받아들이되 무욕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른바 주류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좌절이나 불안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으로 먹고 자꾸 살이 빠지며 더 나아가 기억까지 잃어버리는 이들은 머리와 몸 안에 무언가를 채우기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욕망으로 가득찬 이 시대, 수많은 물건들로 넘쳐나는데도 더 채우고자 혈안이 된 이 시대에 묵묵히 저항하는 것이다.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욕망 없고 소비하지 않는 이들이 어찌면 가장 강력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적절한 욕망이란 활기찬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이지만 지나친 욕망은 화를 부른다. 알랭 드 보통이 말했듯이, 욕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불안이 현대인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은 욕망이 없으므로 불안하지 않다. 단지 외로울 뿐이다. 이 외로움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정신적 쌍둥이가 부재하는 데서 온다. 그래서 이들이 꿈꾸는 것은 ‘이야기할 상대’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고 ‘웃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다. 외로운 심경을 나뭇잎에 써서 날려 보내는 ‘지구와 가까운 소행성과의 랑데부’의 여자는 121개의 나뭇잎을 날려도 응답이 없는 것에 지쳐 포기한 순간, 건너편 창문을 연 남자를 보게 된다. 곧 “우주선 니어호는 3년간 20억 Km를 날아가 에로스라는 소행성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소통을 향한 희망이 꽃필 수 있다

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배부름이 외로움을 줄일 수 있다”

2004년 묶어낸 윤성희의 소설집 “거기, 당신?”은 여러모로 하성란의 소설과 닮았다. 먼저 도시의 외로운 남녀들이 등장한다는 점, 이를 절제된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인물의 감정 표출이 드물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위주로 표현하는 점, 인물의 이름이 없이 여자와 남자로 칭하거나 W, P, Q 등으로 익명으로 불리는 것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또 음식 모형을 만드는 여자, 시청 공원 녹지과에서 일하다가 공원에서 자전거 대여점을 하는 남자, 도서관 사서, 작은 분식집 주인 여자, 존재감이 없어 자꾸 부딪치는 여자 등,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하성란의 인물들이 실리적 인물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밀려나기도 하는데 비해, 윤성희의 인물들은 자신과 비슷한 자들을 만나 교감을 나눈다.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며 사업도 구상한다. 화분 기르거나 나뭇잎에 편지를 써서 날리는 것으로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하성란의 인물들에 비해 행복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외로운 인물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성란 소설의 경우, 식욕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일이 드문 만큼 더욱 특별하다. 마음이 통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곧 하성란 소설에서는 마음이 통해야 함께 음식을 먹는 데 비해, 윤성희 소설에서는 “배부름이 외로움을 줄일 수 있다”,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니 쓸쓸하다는 생각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먹는 일이 먼저 나타난다.

Q는 사이다를 마시고는 트림을 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트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내가 말하자 Q는 마시던 사이다를 주면서 말했다. 마셔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사이다를 남김없이 마시고 아주 길게 트림을 했다. 앞자리

에 앉은 남자가 뒤돌아보았다. 시원했다. 나는 Q와 친구가 되었다.

- '유탄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에서

식당여자가 수제비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수제비는 커다란 냉면그릇에 국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수제비를 먹기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이 몸 속으로 퍼져나갔다. "머칠은 굶은 사람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수제비를 먹는 그녀에게 식당여자가 말했다.

- '봉자네 분식집'에서

첫 예문은 서울 부산 간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이 사이다를 나눠 마시며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며 트림을 시원하게 함으로써 공감대가 형성, 친구가 되는 장면이다. 둘째 예문은 마음을 주고받던 P의 실종으로 불안한 '그녀'가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따뜻한 음식으로 원기를 찾고 식당 주인과의 인연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함께 음식을 나누고 배부르게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모두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친구가 되는 공간은 기차 안, 작은 식당, 찜질방,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데, 그중 찜질방은 친구를 만날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등장한다.

나는 찜질방에서 지냈다. 한달치 목욕비를 한꺼번에 끊으면 20퍼센트를 할인해주었다. 매일매일 목욕을 했더니 잠이 잘 왔다. 개인 사물함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건들을 보면 아예 욕심이 생기질 않았다. 최신식 가전제품을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예쁜 옷을 보아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 '유탄 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에서

먹고 자고 씻고 친구도 만나고 게임도 할 수 있어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 없는 이 공간은 사치품이 필요 없으므로 소비를 부추기는 삶과 반대

지점에 놓인다. 게임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 미역국을 사고, 먹고 나서는 ‘늘어지게’ 잠을 자고, ‘밖의 날씨가 어떨지’ 상관없는 이들의 삶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

이와 같이 윤성희의 인물들도 일상적 존재와 거리가 있으므로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이에 덧붙여 어릴 때 부모가 떠났거나 소통 부재(‘거기, 당신?’), 어린 딸의 죽음과 아버지의 강요(‘봉자네 분식집’), 이기적 가족(‘누군가 문을 두드리다’)들로 인한 상처도 외로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침묵으로 닫혔던 입술이 열리고 웃음소리와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특히 그 사이에 음식이 놓이면 따뜻한 기운이 가득해진다.

그의 허리를 꼭 잡고, 그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여덟달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녀는 가만히 그의 등에 귀를 대보았다. 난 당신의 말을 믿어요. 그의 몸 속에서 그런 말들이 들려왔다.

- ‘거기, 당신?’에서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구부정한 등들은 그녀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밥을 먹는 동안은 많은 것들이 잊혀졌다. 부엌에서 봉자엄마가 노래를 불렀다. 음정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 그 노랫소리가 익숙한 단골손님들은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 ‘봉자네 분식집’에서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온 ‘거기, 당신?’의 그에게 그녀가 다가왔을 때, 웃음과 따뜻한 온기가 이들 사이에 가득해진다. 별거 아닌 말을 하면서도 웃고(“두 가게가 헛갈려서 버스에서 잘 못 내릴 때도 있었어요. 하하…….”) 그녀가 성냥 모형을 건넸을 때도 웃는다(“어! 고마워요, 하하.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고독한 이들이 함께 자

전거를 타고 달리는 끝 장면은 행복함이 온몸 가득 천천히 차오르는 느낌을 준다.

둘째 예문 역시 어린 딸을 잃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봉자 엄마, 그리고 마음을 나누던 P의 죽음으로 상실감이 큰 화자가 함께 식당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봉자네 분식집'의 마지막 장면이다. 밥을 먹는 사람들과 음식 만드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는 그녀 모두 따뜻한 밥 한 그릇처럼 정겨운 이 장면은 밥이 주는 힘을 잘 보여준다.

4. 세속 도시의 이단아들

하성란과 윤성희의 인물들은 공상을 좋아하며 바람 따라 길을 떠나는 인물들로 전형적인 몽상가들이며 보헤미안들이다. 한편으로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고 성실하다. 그러나 실적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들은 무능한 사원 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세탁기나 뒤집개 같은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고 말을 건네는 이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를 간절히 원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소통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친해진 자들과 함께 식당을 열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세속적 욕망에 초연함으로써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소비를 부추기는 이 사회의 이단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벼운 몸으로 말없이 세속 도시를 날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들을 지상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아마도 따뜻한 말과 밥 한 그릇일 것이다.